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4. No.6

미국 경기 회복과 한·미 FTA의 수확

— 한·미 FTA 3주년의 성과 —

2015년 3월

이혜연 연구원

명진호 수석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최근 對美 교역 및 투자 동향	1
1. 교역	1
2. 수출	2
3. 수입	3
4. 투자	4
II. 한·미 FTA 교역 성과 분석	6
1. FTA 혜택별 수출 성과	6
2. 각 산업의 FTA 혜택별 수출 성과	8
3. FTA 이후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1
III. 한·미 FTA 이후 주요 품목별 對美 수입 현황	12
1. 총괄	12
2. 승용차	13
3. 농축수산물	15
IV. 결론 및 시사점	18

☐ 보고서 내용 문의처

이혜연 연구원(☎ 02-6000-5498, haeylee@kita.net)

명진호 수석연구원(☎ 02-6000-5263, thetotoro@kita.net)

- 요약 -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우리의 대미 수출과 수입이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고, 양국 간 교역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 2014년 대미 수출 증가율은 13.3%로 전세계 수출 증가율(2.3%)을 크게 상회했고, 수입 증가율도 9.1%로 반등했다.

한미 FTA 발효 3년차의 대미 수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수혜품목의 수출은 5.5% 증가하여, 일본(-1.5%), 중국(5.3%) 등 주요 경쟁 대상국의 수출 증가율을 앞섰다. 산업별로는 FTA 수혜품목 중 수송기계(6.2%), 금속 및 광물(26.1%), 화학제품(11.2%)의 수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고, 규모는 작지만 목재 및 종이(22.1%)와 농축수산물(7.5%)의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미 수출을 늘려나간 결과, 우리의 미국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세를 지속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2012년 2.59%→2013년 2.75%→2014년 2.97%)에 이르렀다. 더불어 우리의 대표 경쟁국인 일본의 엔화 약세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했지만 미국 수입시장에서의 한일 간 점유율 격차는 사상 최저치(2012년 3.85%p→2013년 3.37%p→2014년 2.74%p)로 좁혀졌다.

한편, 수입은 의약품, 승용차,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여 우리의 대미 수입을 견인했다. 특히 승용차의 대미 수입은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차 선호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한 관세 철폐(4%→0%)가 예정되어 있어 수입이 추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우려했던 농축수산물 수입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고, 다만 바다가재(3년간 연평균 272.3%) 등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났다.

이러한 FTA 효과와 함께 미국 경제의 회복은 향후에도 양국 간 교역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 2015년에도 증가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TPP의 상반기 내 타결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는 TPP 발효 이전에 한미 FTA를 활용한 시장 선점 극대화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I. 최근 對美 교역 및 투자 동향

1. 교역

□ 2014년 미국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고 FTA에 따른 관세인하 폭이 확대되면서 우리의 對美 교역이 對세계 교역 증가율(2.1%)을 크게 상회

- FTA 3년차인 2014년 우리나라의 對美 교역은 전년 대비 11.6% 증가한 1,115.7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702.9억 달러, 수입은 9.1% 증가한 452.8억 달러 기록
- 2014년 對美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44.6억 달러 증가한 250억 달러 흑자를 기록

<최근 우리나라의 對美 교역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

연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1월
수출	463.8	376.5	498.2	562.1	585.3	620.5	702.9	55.8
(증가율)	(1.3)	(-18.8)	(32.3)	(12.8)	(4.1)	(6.0)	(13.3)	(14.8)
수입	383.7	290.4	404.0	445.7	433.4	415.1	452.8	36.3
(증가율)	(3.1)	(-24.3)	(39.1)	(10.3)	(-2.8)	(-4.2)	(9.1)	(0.3)
교역	847.4	666.9	902.2	1,007.8	1,018.7	1,035.6	1,155.7	92.0
(증가율)	(2.1)	(-21.3)	(35.3)	(11.7)	(1.1)	(1.7)	(11.6)	(8.6)
무역수지	80.1	86.1	94.1	116.4	151.8	205.4	250.0	19.5

주 : ()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2. 수출

□ 2014년 對美 수출은 우리의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13.3%의 증가율을 기록

- 2014년 對세계 수출은 2.3% 증가하는데 그치고 주요 수출국인 중국(-0.4) 및 일본(-7.2)에 대한 수출은 감소한데 반해, 미국에 대한 수출은 10% 이상의 증가율 시현

〈최근 우리나라의 對주요국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

상대국	2011년		한미 FTA 발효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562.1	12.8	585.2	4.1	620.5	6.0	702.8	13.3
세계	5,552.1	19.0	5,478.7	-1.3	5,596.3	2.1	5,726.6	2.3
중국	1,341.9	14.8	1,343.2	0.1	1,458.7	8.6	1,452.9	-0.4
일본	396.8	40.8	388.0	-2.2	346.6	-10.7	321.8	-7.2
ASEAN	718.0	35.0	791.5	10.2	820.0	3.6	845.8	3.1
EU	557.3	4.1	493.7	-11.4	488.6	-1.0	516.6	5.7
GCC	172.7	38.1	195.4	13.1	177.9	-9.0	198.3	11.4

주1 : 전년대비 증가율

주2 : 신흥국·개도국, 선진국 분류는 IMF 기준(2014.10)에 따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2014년 對美 수출 호조는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철강제품 등의 품목 수출이 주도

- 對美 수출 비중 30.8%를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출은 각각 20.2%, 7.2% 증가하였으며, 무선통신기기(對美 수출 비중 11.8%) 수출은 전년 대비 9.9% 증가
- 철강관 및 철강선, 철강판이 각각 41.7%, 66.6%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對美 수출 호조에 크게 기여

〈우리나라의 對美 주요 수출품목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

품목	2013		20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출전체	620.5	6.0	702.9	13.3
자동차	124.9	15.3	150.1	20.2
무선통신기기	75.6	32.3	83.0	9.9
자동차부품	61.6	9.2	66.1	7.2
석유제품	35.1	21.1	30.6	-12.6
반도체	29.1	11.5	28.9	-0.9
철강관 및 철강선	19.5	-3.1	27.6	41.7
철강판	11.4	-12.7	18.9	66.6
원동기 및 펌프	14.8	6.9	18.1	22.9
고무제품	15.2	-15.7	15.2	0.4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7.7	-60.2	13.3	72.3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3. 수입

□ 2014년 對美 수입 증가율은 對세계 증가율(1.9%)을 훨씬 상회하는 9.1%를 기록

- FTA 발효 이후 2012-13년간 對美 수입이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플러스로 반전
- 미국에 대한 수입이 EU(11.0%)를 제외한 모든 주요 지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기록

〈최근 우리나라의 對주요국 수입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

상대국	2011년		한미 FTA 발효					
			2012년		2013년		2014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미국	445.7	10.3	433.4	-2.8	415.1	-4.2	452.8	9.1
세계	5,244.1	23.3	5,195.8	-0.9	5,155.9	-0.8	5,255.1	1.9
중국	864.3	20.8	807.8	-6.5	830.5	2.8	900.8	8.5
일본	683.2	6.3	643.6	-5.8	600.3	-6.7	537.7	-10.4
ASEAN	531.2	20.5	519.8	-2.2	533.4	2.6	534.2	0.1
EU	474.2	22.5	503.7	6.2	562.3	11.6	623.9	11.0
GCC	954.6	43.7	1,047.3	9.7	1,057.7	1.0	1,007.2	-4.8

주1 : 전년대비 증가율

주2 : 신흥국·개도국, 선진국 분류는 IMF 기준(2014.10)에 따름

자료: 한국무역협회(KITA.net)

□ 對美 수입 호조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식물성 물질, 석유제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

- 식물성 물질(옥수수, 사료 등)과 석유제품의 수입은 각각 136.3%, 324.7%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며 對美 수입 증가를 견인

〈우리나라의 對美 주요 수입품목 동향〉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

품목	2013		201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수입전체	415.1	-4.2	452.8	9.1
반도체	40.2	-10.3	39.9	-0.6
반도체 제조용 장비	19.6	-27.8	25.3	29.3
항공기 및 부품	27.1	-14.0	19.7	-27.3
식물성 물질	8.2	-55.3	19.3	136.3

곡실류	15.4	11.7	16.7	8.6
계측제어분석기	12.3	-13.1	13.8	12.0
원동기 및 펌프	12.6	4.0	13.2	5.1
석유제품	3.1	24.7	13.1	324.7
육류	10.0	-4.4	13.0	30.3
농약 및 의약품	9.8	16.1	11.3	16.3

주 : MTI 3단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4. 투자

□ 2014년 한국의 對美 투자는 100억 달러 수준에 근접했고, 미국의 對韓 투자금액은 3년 연속 30억 달러 이상을 기록

- (한국→미국 투자) 2014년 對美 투자금액은 한미 FTA 발효 후 최대 규모인 93.7억 달러를 기록
- (미국→한국 투자) 2012년 이전 20억 달러 내외였던 미국의 對韓 투자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30억 달러를 초과

〈한·미 투자 동향〉

(단위: 억 달러, %)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한미 FTA 발효			누적
							2012	2013	2014	
한국→미국	금액	45.1	62.8	39.8	51.8	166.1	69.6	59.3	93.7	802.9
	비중	14.6	16.9	12.6	14.9	35.7	17.2	16.4	26.3	19.7
	순위	2	1	2	1	1	1	1	1	1
미국→한국	금액	23.3	13.3	14.9	19.7	23.7	36.7	35.3	36.1	569.5
	비중	22.1	11.3	12.9	15.1	17.3	22.6	24.2	19.0	24.0
	순위	1	3	4	3	1	2	1	1	1

주1 : 신고기준

주2 : 한국→미국 누적 투자는 1968-2014년, 미국→한국 누적 투자는 1962-2014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은행

□ 한미 FTA 이후 우리나라의 對美 투자는 서비스 및 인프라 투자, 미국의 對韓 투자는 제조업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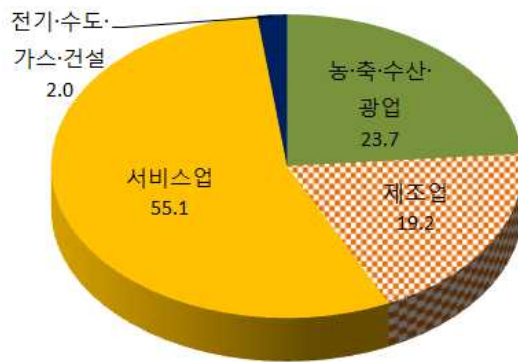
- (한국→미국 투자) FTA 발효 이후 서비스 산업, 전기·수도·가스·건설 산업의 비중 확대

- 누적 기준으로는 서비스산업, 농·축·수산·광업, 제조업, 전기·수도·가스·건설 순으로 對美 투자 비중이 높음
- (미국→한국 투자) 한미 FTA 발효 후에는 제조업,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
 - 누적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제조업, 전기·수도·가스·건설 순으로 對韓 투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한·미 투자 업종별 구성〉

① 한국→미국 투자

누적(1968-2014년)



한미 FTA 이후(2012-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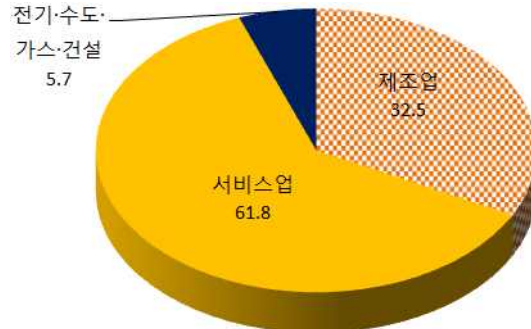


② 미국→한국 투자

누적(1962-2014년)



한미 FTA 이후(2012-2014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

II. 한미 FTA 교역성과 분석

1. FTA 혜택별 수출 성과

□ 한미 FTA 발효 3년차인 2014년에는 FTA 수혜품목군의 수출이 5.5%, 비수혜품목군의 수출은 15.2% 증가

- FTA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5.5%로 2013년(1.9%)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시현
- FTA 발효 이후 3년간 수혜품목의 수출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7.2% 증가
- FTA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하여 수혜품목의 증가율을 크게 상회
- 이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과 관련된 철강제품(유정용 강관)의 수출 증가와 더불어 미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증대로 FTA 비수혜품목인 휴대폰, 승용차 등의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 기인

〈FTA 혜택별 對美 수출 현황(미국의 對韓 수입)〉

(단위: 억 달러, 전년 대비 %)

연도	2011년 FTA 발효전	한·미 FTA 발효(2012.3월)							
		2012년		2013년		2014년			3년간 연평균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비중	
전체	566.6	589.0	3.9	622.3	5.7	696.1	11.9	100.0	7.1
수혜 품목	181.7	208.2	14.6	212.1	1.9	223.7	5.5	32.1	7.2
非수혜 품목	384.9	380.7	-1.1	410.2	7.7	472.3	15.2	67.9	7.1

자료: USITC, 한국무역협회(K-stat)

□ 우리의 對美 수출은 FTA 수혜품목과 비수혜품목 모두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

- (FTA 수혜품목) 일본의 對美 수출은 1.5% 감소했고, 중국의 對美 수출은 5.3% 증가해 우리의 對美 수출 증가율 5.5%를 하회

- (FTA 비수혜품목) 일본의 對美 수출은 4.3% 감소하고 중국과 대만은 각각 6.4%, 7.5% 증가해 우리의 수출 증가율 15.2%에 크게 못미침

〈한·미 FTA 이후 3년간 주요국의 對美 수출(미국의 수입) 비교〉

(단위: 전년 대비 %)

연도	2012년			2013년			2014년		
	수혜	非수혜	전체	수혜	非수혜	전체	수혜	非수혜	전체
한국	14.6	-1.1	3.9	1.9	7.7	5.7	5.5	15.2	11.9
일본	15.3	12.6	13.5	-7.6	-4.2	-5.4	-1.5	-4.3	-3.3
중국	6.6	6.5	6.6	4.5	2.7	3.5	5.3	6.4	6.0
대만	8.9	-13.0	-6.2	-0.7	-3.4	-2.4	6.0	7.5	7.0
對세계	1.3	4.7	3.0	-2.5	1.6	-0.4	0.5	6.2	3.5

자료: USITC, 한국무역협회(K-stat)

【FTA 혜택별 수출 성과 분석방법】

- 분석기간: 한·미 FTA 발효('12.3월 발효) 이후 3년간 수출 성과 분석
- 분석대상: 미국의 對세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품목별 수입 데이터
 - 품목별로 관세가 인하된 FTA '수혜 품목'인지 그렇지 않은 '非수혜 품목'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미국측 수입 데이터 활용
 - 수혜품목: '12.3.15일 FTA 발효 이후 관세가 n%→0%로 철폐 혹은 한·미 FTA 양허안에 따라 인하되는 품목
 - 非수혜품목: 원래 관세가 0%인 無관세 품목이나 일정기간 관세 인하 및 철폐유예품목(승용차, 화물자동차 등), 양허 제외 품목 혹은 기타품목
 - 경쟁국 대비 한·미 FTA의 상대적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같은 기간 미국의 對경쟁국 수입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분석
- 분석방법: 한·미 FTA 발효 후 미국의 對한국·세계·일본·중국·대만 품목별 수입 데이터(각국의 對美 수출)와 한·미 FTA의 미국측 개방안을 연계하고, FTA '수혜품목'과 '非수혜품목'으로 구분하여 수출 성과를 분석
- 참고사항: 한·미 FTA 양허안은 HS 2002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나 현재 수출입시 HS 2012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양허안과 통계 데이터 연계시 일부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자료, 트레이드 내비(<http://www.tradenavi.or.kr>) 자료, HS코드 변경 이력을 종합하여 자료간 오차 최소화

2. 각 산업의 FTA 혜택별 수출 성과

□ 2014년에는 수송기계, 금속 및 광물, 화학제품, 농수산물식품 등의 분야에서 FTA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가 두드러짐

- (수송기계) 자동차 부품을 비롯한 FTA 수혜품목의 對美 수출 증가율은 발효 3년차에 6.2%를 기록하여 일본(-4.1%), 대만(2.6%)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수출이 크게 증가한 자동차가 현재 비수혜품목(2016년 관세철폐 예정)으로 분류되어 있어 수송기계 중 FTA 비수혜품목의 수출이 19.5%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
- (금속 및 광물) FTA 수혜품목에 대한 對美 수출은 전년 대비 26.1% 증가하여 일본(-6.3%), 중국(6.3), 대만(3.2%)의 수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
- (화학제품) FTA 수혜품목의 2014년 수출 증가율이 일본(3.4%), 중국(5.2%), 대만(8.0%)의 보다 높은 11.2%를 기록
 - 화학제품 중 FTA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율이 FTA 발효 후 3년 연속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비수혜품목의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관세인하 및 철폐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됨
- (전기전자) FTA 발효 3년차 수혜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5.3%로 對세계 증가율(5.8%)을 소폭 하회. 경쟁국인 일본(-3.8%)보다는 앞서지만 중국(7.9%), 대만(7.5%)보다는 낮은 수준
- (기계)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1.2% 감소한 반면,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11.1% 증가하여 경쟁국에 비해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석유제품) 유가 하락으로 미국의 對세계 석유제품 수입이 10% 가량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품목이 FTA 수혜품목인 석유제품 수출은 2014년 1.9% 증가
- (농수산물식품)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은 수출 금액규모 자체가 작지만 FTA 수혜품목 수출이 발효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7.5% 증가율을 기록

〈산업의 FTA 혜택별 對美 수출 현황(미국의 수입)①〉

		FTA수혜 품목(억달러, %)			FTA비수혜(억달러, %)			전체(억달러, %)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수송기계		38.7 (23.2)	43.0 (11.1)	45.6 (6.2)	113.5 (23.0)	130.3 (14.8)	155.6 (19.5)	152.1 (23.1)	173.2 (13.9)	201.3 (16.2)
	증가율									
	일본	23.4	-14.4	-4.1	25.7	1.9	-7.0	25.2	-1.6	-6.5
	중국	15.3	5.6	17.8	-2.5	-2.7	29.5	11.5	4.1	19.8
	대만	9.3	1.4	2.6	22.1	-2.6	1.8	11.8	0.6	2.5
	對세계	15.1	2.9	11.3	19.3	6.0	4.7	18.2	5.2	6.4
전기전자		24.6 (5.0)	25.3 (2.9)	26.7 (5.3)	97.7 (-25.6)	115.8 (18.5)	120.2 (3.9)	122.3 (-21.0)	141.1 (15.4)	146.9 (4.1)
	증가율									
	일본	23.1	-4.2	-3.8	0.6	-14.2	-8.0	10.0	-9.6	-6.0
	중국	8.8	2.9	7.9	14.8	8.4	8.5	12.9	6.7	8.3
	대만	4.7	5.5	7.5	-24.3	-6.8	5.7	-21.2	-5.0	6.0
	對세계	7.3	0.3	5.8	3.0	3.9	5.3	4.6	2.5	5.5
비전기기기 (기계)		39.8 (17.2)	37.6 (-5.7)	37.1 (-1.2)	73.5 (2.9)	71.4 (-3.0)	79.3 (11.1)	113.4 (7.5)	108.9 (-3.9)	116.4 (6.9)
	증가율									
	일본	17.4	-10.1	2.4	4.8	-10.7	0.9	8.9	-10.5	1.4
	중국	14.0	10.3	11.7	2.7	0.0	3.3	3.8	1.1	4.3
	대만	21.3	-3.8	7.6	-5.3	1.7	5.7	1.2	0.1	6.2
	對세계	11.2	0.2	9.6	5.4	-1.7	5.2	6.8	-1.2	6.3
금속 및 광물		15.5 (13.5)	15.4 (-0.4)	19.5 (26.1)	45.3 (12.2)	42.5 (-6.3)	59.3 (39.8)	60.8 (12.5)	57.9 (-4.8)	78.8 (36.1)
	증가율									
	일본	16.2	-4.9	-6.3	12.6	-11.3	2.6	13.9	-8.9	-0.8
	중국	6.1	6.2	6.3	7.4	-3.4	21.7	6.6	2.8	11.4
	대만	6.0	0.5	3.2	10.8	-5.6	23.4	8.2	-2.4	12.4
	對세계	2.5	2.6	4.5	-4.7	-3.9	9.1	-2.6	-1.9	7.6
화학제품		19.1 (11.0)	22.4 (17.6)	25.0 (11.2)	14.0 (0.1)	9.1 (-35.4)	15.2 (67.5)	33.1 (6.1)	31.5 (-4.9)	40.1 (27.4)
	증가율									
	일본	5.6	-3.8	3.4	-7.7	4.5	-4.6	0.4	-0.9	0.4
	중국	9.2	5.3	5.2	-2.9	-4.1	8.0	6.2	3.2	5.8
	대만	8.5	3.5	8.0	4.6	10.6	31.6	7.8	4.8	12.5
	對세계	0.0	2.8	4.0	-2.0	-0.9	9.3	-1.1	0.9	6.7
석유제품		29.4 (26.5)	28.3 (-3.7)	28.9 (1.9)	- (-)	- (-)	- (-)	29.4 (26.5)	28.3 (-3.7)	28.9 (1.9)
	증가율									
	일본	19.3	13.0	-24.3	-	-	-	19.3	13.0	-24.3
	중국	35.3	57.0	93.6	-	-	-	35.3	57.0	93.6
	대만	100.8	-91.8	87.6	-	-	-	100.8	-91.8	87.6
	對세계	-5.5	-11.2	-10.0	-	-	-	-5.5	-11.2	-10.0

주: ()는 전년비 증가율, WTO 산업분류 바탕 재분류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산업의 FTA 혜택별 對美 수출 현황(미국의 수입)②>

		FTA수혜 품목(억달러, %)			FTA비수혜(억달러, %)			전 체(억달러, %)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기타제조업품		6.1 (-5.6)	7.0 (14.5)	7.7 (10.3)	12.9 (0.3)	14.7 (13.8)	16.6 (13.1)	19.1 (-1.6)	21.7 (14.1)	24.4 (12.2)
	증가율									
	일본	3.5	0.2	-1.7	-5.2	-2.8	-2.9	-1.3	-1.4	-2.3
	중국	10.8	5.7	4.4	0.2	0.4	6.6	3.9	2.4	5.8
	대만	4.3	0.9	11.4	20.5	-3.8	8.5	14.1	-2.1	9.6
	對세계	8.7	3.6	4.5	2.4	4.0	5.1	4.5	3.9	4.9
가죽 및 신발		18.4 (10.4)	15.7 (-14.7)	15.5 (-1.8)	3.7 (0.7)	3.1 (-15.7)	3.6 (16.6)	22.1 (8.7)	18.8 (-14.9)	19.0 (1.3)
	증가율									
	일본	0.1	-9.2	-2.7	15.3	-3.6	-5.2	2.1	-8.4	-3.1
	중국	13.8	4.2	2.4	5.9	-1.2	4.0	12.8	3.5	2.6
	대만	7.1	1.3	4.6	-12.4	-18.1	3.5	2.3	-2.8	4.4
	對세계	11.6	3.8	4.5	-4.4	-8.8	0.1	7.5	0.9	3.6
섬유 및 의류		12.9 (4.9)	13.0 (1.3)	13.2 (1.6)	1.3 (8.2)	1.3 (-4.8)	1.3 (1.1)	14.2 (5.2)	14.3 (0.7)	14.5 (1.5)
	증가율									
	일본	11.1	-8.9	3.9	15.2	-5.3	10.2	11.8	-8.3	5.0
	중국	-2.6	2.6	0.7	8.4	3.3	10.0	-2.3	2.6	1.0
	대만	-1.0	-2.8	2.8	9.0	14.5	15.4	-0.3	-1.5	3.9
	對세계	-1.6	3.4	2.8	6.5	4.7	8.7	-1.3	3.5	3.1
목재 및 종이		0.0 (7.8)	0.1 (17.8)	0.1 (22.1)	7.3 (3.2)	8.1 (11.3)	9.0 (11.4)	7.3 (3.3)	8.1 (11.3)	9.1 (11.4)
	증가율									
	일본	17.4	-6.2	-8.2	5.0	-14.3	1.8	5.1	-14.2	1.7
	중국	13.7	10.1	10.9	8.1	4.3	5.9	8.7	4.9	6.4
	대만	15.9	-3.7	4.5	10.9	-2.4	7.2	11.0	-2.5	7.2
	對세계	13.3	12.0	9.3	5.9	6.8	7.0	6.4	7.2	7.1
농수산물		3.6 (9.6)	4.2 (16.9)	4.5 (7.5)	2.0 (5.7)	2.2 (10.5)	2.2 (-0.1)	5.6 (8.2)	6.4 (14.6)	6.7 (4.9)
	증가율									
	일본	4.5	-5.0	-0.6	3.4	-0.1	6.0	3.9	-2.6	2.8
	중국	9.1	2.8	0.0	8.1	-2.5	0.6	8.4	-0.8	0.4
	대만	8.8	10.0	5.3	-0.2	-3.6	6.2	3.0	1.6	5.8
	對세계	8.1	4.1	5.9	3.5	1.3	9.5	5.9	2.7	7.6

주: ()는 전년비 증가율, WTO 산업분류 바탕 재분류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3. FTA 이후 미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 엔화 약세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해 한·일 간 점유율 격차는 사상 최저 수준

○ 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꾸준한 상승해 2014년에는 2.97%로 3%에 근접하여 10년 만에 가장 높은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기록

- 우리나라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04년 3.14%를 기록한 이래 하향세를 보였으나, FTA 발효 이후 2012년 2.59%→2013년 2.75%→2014년 2.97%로 상승세를 지속

*우리의 세계시장점유율은 3% 내외로 2014년에는 3.4%(WTO 자료 참조)

○ 경쟁국인 일본이 엔화 약세를 통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FTA 이후 對美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한·일 간 점유율 격차가 사상 최저치인 2.74%p까지 좁혀짐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 추이>

(단위: %, %p)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한국 (A)	3.14	2.62	2.47	2.43	2.29	2.52	2.55	2.57	2.59	2.75	2.97
일본 (B)	8.82	8.26	7.98	7.45	6.63	6.16	6.30	5.84	6.43	6.11	5.71
한·일 격차 (B-A)	5.68	5.64	5.51	5.01	4.34	3.64	3.75	3.27	3.85	3.37	2.74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Ⅲ. 한·미 FTA 이후 주요 품목별 對美 수입 현황

1. 총괄

□ 의약품, 승용차, 나프타, 원유 수입이 급증했고, 육류 수입은 소폭 증가

- 의약품(수입증가 기여율 59.7%), 승용차(79.0%) 등이 對美 수입증가를 견인했고 기타 화학공업제품, 펌프, 계측기, 로얄제리, 화장품, 과실류 등의 수입도 크게 증가
- FTA로 인한 관세인하 영향이 크지는 않지만 미국의 셰일가스 및 석유산업 확대에 따라 나프타 등 석유제품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201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산 원유 도입 시작
- 당초 급증할 것으로 우려했던 육류 수입은 증감을 반복하며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입 증가율이 0.1% 증가에 그침

<한미 FTA 발효 이후 주요 품목별 對美 수입현황>

(단위: 억 달러, %)

품목명	2011년 FTA 발효前 (A)	2014년 FTA 발효 3년 (B)		발효 3년간 연평균 증가율 (B/A)	발효 3년간 수입증가 기여율	품목명	2011년 FTA 발효前 (A)	2014년 FTA 발효 3년 (B)		발효 3년간 연평균 증가율 (B/A)	발효 3년간 수입증가 기여율
	금액	금액	전년 대비				금액	금액	전년 대비		
총계	445.7	452.8	9.1	0.5	100.0	원동기	7.2	6.9	8.1	-1.4	-4.3
집적회로 반도체	38.4	38.2	-0.4	-0.2	-3.2	고철	14.2	6.6	-20.7	-22.4	-106.1
반도체 제조용장비	27.6	19.7	33.5	-10.7	-111.1	기타화학 공업제품	5.3	6.5	5.0	7.0	16.9
사료	18.3	15.1	257.9	-6.2	-45.1	펌프	5.0	6.3	1.9	8.0	18.1
항공기부품	13.6	12.2	-17.4	-3.5	-19.3	기타기계류	6.5	6.2	13.8	-1.7	-4.6
가축육류	11.6	11.7	31.0	0.1	0.7	반도체제조용 장비부품	4.8	5.6	16.5	5.2	11.1
나프타	1.2	11.3	589.9	112.4	141.6	계측기	4.4	5.6	22.4	8.2	16.5
의약품	6.1	10.4	18.1	19.2	59.7	유연탄	12.9	5.2	-31.9	-26.2	-108.0
합성수지	8.1	9.7	-0.3	6.1	22.1	꿀 및 로얄제리	3.0	4.8	21.5	16.9	25.4
기타 정밀 화학원료	10.2	9.5	6.2	-2.3	-9.5	기타 플라스틱 제품	4.5	4.8	-11.3	2.2	4.2
승용차	3.5	9.1	16.9	38.0	79.0	소가죽	4.4	4.7	-0.8	2.8	5.3
기타 정밀 화학제품	8.4	8.9	-4.4	2.2	7.9	화장품	3.1	4.2	14.1	11.5	16.5
항공기	15.0	7.5	-39.1	-20.7	-105.3	과실류	3.0	4.2	4.2	12.2	17.1
곡류	10.3	7.0	11.7	-12.3	-47.2	원유	0.0	1.5	*	1,232.3	21.4

주1 : MTI 4단위 기준 상위 주요 수입품

주2 : 원유의 2014년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은 13,999,474.6%

주3 : 수입증가 기여율 = (품목별 수입의 증감액/전체 수입의 증감액)*100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2. 승용차

□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자동차 선호 확산 및 관세인하 효과로 對美 승용차 수입은 지난 3년간 연평균 38.0% 증가

- 미국產 승용차 수입은 발효 1년차에 2배 가량 급증했고, 이후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
 - * 미국產 승용차 수입 증가율: 2012년 97.3% → 2013년 13.9% → 2014년 16.9%
- 물량(대수)기준으로 FTA 발효 이후 수입이 급증했고 수입관세가 철폐(4%→0%)되는 2016년부터는 수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참고자료】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 관세철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FTA를 통해 4%p의 관세가 인하되었고, 미국의 경기 회복, 수출 구조 다변화(OEM 수출 등)의 영향으로 對美 승용차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
- 지난 3년간 연평균 대미 자동차 수출은 19.4% 증가했고, 2016년에는 관세철폐 (2.5%p 인하)효과가 기대됨
 - * 미국→한국: 기본 8.0% → 발효시(2012.3월) 4.0% → 발효 5년차(2016.1월) 0.0%
 - * 한국→미국: 기본 2.5% → 발효시(2012.3월) 2.5% → 발효 5년차(2016.1월) 0.0%

- 미국 브랜드 차량의 판매(신규등록)도 FTA 이후 빠르게 늘어 지난 3년간 연평균 20.6%의 증가세를 기록
- 유럽 브랜드의 미국產 차량과 일본 브랜드의 미국產 차량을 포함할 경우 미국產 차량의 실제 판매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국가·브랜드별 추이(신규등록)〉

(단위: 대, %)

국가명	FTA 발효前 2011(A)	한·미 FTA 발효后 3년			발효 3년간 연평균 증가율(B/A)
		2012	2013	2014(B)	
미국	8,252 (10.8)	9,724 (17.8)	11,657 (19.9)	14,465 (24.1)	20.6
유럽	77,849 (31.4)	97,210 (24.9)	122,798 (26.3)	157,801 (28.5)	26.6
일본	18,936 (-20.7)	23,924 (26.3)	22,042 (-7.9)	24,093 (9.3)	8.4

자료: 한국수입자동차협회(<http://www.kaida.co.kr>)

【참고자료】 한국의 수입 자동차 시장

- 승용차 수입확대로 국내 승용차 시장의 수입차 점유율도 빠르게 상승, 2011년 7.98%에 머물렀던 수입차 점유율은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점유율 10%를 돌파한 이후 꾸준히 늘어나 2014년에는 13.92%를 기록

〈국내 승용차 시장 수입차 점유율〉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1월
점유율(%)	6.92	7.98	10.01	12.10	13.92	18.12

자료: 한국수입자동차협회(<http://www.kaida.co.kr>)

- 對美 수입뿐 아니라 對EU 수입(연평균 30.6%)도 크게 늘어나 수입 승용차 시장 규모가 연평균 30.6% 증가
- 우리나라가 미국, EU와 체결한 FTA의 영향으로 한때 수입 규모가 줄었던 일본產 승용차 수입은 엔화 약세 효과에 힘입어 급증

〈우리나라의 승용차 교역 현황(금액기준)〉

(단위: 백만 달러, %)

	FTA 발효前 2011(A)		한·미 FTA 발효后 3년						발효 3년간 연평균 증가율 (B/A)
			2012		2013		2014(B)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美 수출	8,632	30.5	10,313	19.5	12,113	17.5	14,708	21.4	19.4
對美 수입	347	21.5	685	97.3	780	13.9	912	16.9	38.0
對세계 수입	3,629	25.0	4,567	25.9	5,573	22.0	8,087	45.1	30.6
對EU 수입	2,683	36.7	3,252	21.2	3,837	18.0	5,977	55.8	30.6
對日 수입	425	-21.8	473	11.4	767	62.1	955	24.6	31.0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소비자의 선호도 증가를 바탕으로 미국產·EU產은 FTA 효과를 활용했고, 일본產은 엔화 약세에 힘입어 수입을 증대

〈우리나라의 승용차 교역 현황(대수 기준)〉

(단위: 대, %)

	FTA 발효前 2011년(A)		한·미 FTA 발효后 3년						발효 3년간 연평균 증가율 (B/A)
			2012		2013		2014(B)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對美 수출	588,181	15.1	693,736	17.9	759,385	9.5	893,580	17.7	15.0
對美 수입	13,669	2.3	28,361	107.5	31,654	11.6	34,344	8.5	35.9
對세계 수입	117,592	12.0	154,407	31.3	191,068	23.7	266,431	39.4	31.3
對독일 수입	65,233	33.7	79,740	22.2	90,156	13.1	120,530	33.7	22.7
對日 수입	17,852	-24.4	19,171	7.4	36,194	88.8	47,939	32.5	39.0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www.kama.or.kr)

3. 농축수산물

□ 농축수산물 수입은 FTA 발효 3년간 연평균 1.3% 증가했으며, 주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 위주로 수입이 증가

- 對美 농축수산물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옥수수, 밀, 사료 등은 작황부진 등의 영향으로 한때 수입이 급감했으나 2014년 들어 옥수수(전년비 증가율 589.7%)와 사료(257.9%) 수입이 급증하며 對美 농축수산물 전체 수입 증가를 견인

* 사료는 對美 전체 수입의 3.3%, 對美 농축산물 수입의 20.0%를 차지

- 당초 수입 급증이 우려되었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은 광우병 발병 등의 이유로 FTA 발효 이후 수입이 급격히 줄었으나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며 FTA 발효 이전 수준에 근접

- 수입 급감에 대한 기저효과로 2014년에는 30.3%의 높은 수입 증가율을 보였으나 FTA 발효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0.6%를 기록

- FTA 발효 이후 對美 수입이 증가세를 이어나가는 품목으로는 체리(FTA 이후 3년간 연평균증가율 39.4%) 등 과실류, 호두(14.7%) · 아몬드(35.0%) 등 견과류, 커피(10.9%)·코코아조제품(15.0%)·연초(47.0%) ·포도주(19.8%) 등 기호식품, 사탕과자(23.9%)·빵(20.1%) 등의 농산가공품, 치즈(29.0%) 등 낙농품 등이 있음

- FTA 이후 수입이 늘어난 농림수산물 가운데 상당수는 국내產 생산이 크지 않은 품목들로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수입 품목간의 경쟁 심화 등을 통한 소비자 후생 증가에 기여

- 바닷가재 수입은 3년간 연평균 272.3% 증가하여 시장이 확대되었으며, 미국產 와인은 칠레EU產 와인 등 다른 수입產과 경쟁 심화

* 바닷가재 수입규모: 2011년 22백만(미국產 3.8%) → 2014년 74백만(미국產 55.3%)

<한·미 FTA이후 주요 농축수산품의 對美 수입현황>

(단위: 백만 달러, %)

품목명	'11년 FTA 발효前(A)	'13년 FTA 발효 2년		'14년 FTA 발효 3년(B)		발효 3년간 연평균 증감율 (B/A)	발효 3년간 수입증가 기여율
	금액	금액	전년비	금액	전년비		
농림수산물	7,330	5,694	-9.0	7,612	33.7	1.3	39.50
농산물	4,989	3,496	-17.4	4,912	40.5	-0.5	-10.75
곡류	1,034	624	15.4	697	11.7	-12.3	-47.20
밀	512	434	-1.6	386	-11.2	-9.0	-17.66
옥수수	397	41	-18.3	284	589.7	-10.5	-15.73
대두	326	371	19.7	379	2.0	5.2	7.42
과실류	296	401	0.6	418	4.2	12.2	17.06
체리	45	88	8.1	123	40.6	39.4	10.86
오렌지	162	186	-11.7	156	-16.1	-1.2	-0.78
레몬	9	24	57.9	25	7.0	42.1	2.32
견과류	171	282	19.0	346	22.8	26.4	24.48
호두	81	108	9.9	123	13.9	14.7	5.79
아몬드	85	161	25.2	208	29.5	35.0	17.32
식물성유지	47	68	198.6	29	-57.1	-14.8	-2.51
대두유	32	55	702.8	13	-76.9	-26.6	-2.73
유지가공품	35	35	3.9	32	-6.5	-2.6	-0.37
박류	216	263	51.9	325	23.8	14.6	15.30
사료	1,832	422	-73.1	1,511	257.9	-6.2	-45.07
소스류	22	29	20.3	30	3.7	11.1	1.13
기호식품	255	373	9.7	386	3.6	14.8	18.36
커피류	33	47	3.0	45	-5.7	10.9	1.67
초코렛및코코아조제품	81	92	1.6	97	5.7	6.1	2.22
코코아조제품	35	40	-6.5	53	30.7	15.0	2.54
연초류	12	42	74.6	37	-10.9	47.0	3.57
주류	29	43	-19.0	88	107.7	44.4	8.26
맥주	6	7	4.6	7	8.7	9.5	0.24
포도주	12	20	14.7	21	7.7	19.8	1.24
당류	21	24	8.8	27	14.0	9.7	0.93
과일주스	59	104	21.1	70	-32.5	5.9	1.56
농산가공품	136	181	12.6	224	24.1	18.2	12.39
사탕과자류	30	39	15.9	56	44.0	23.9	3.72
빵	29	45	17.5	49	10.4	20.1	2.92
기타농산가공품	59	81	14.7	101	23.7	19.5	5.83
육류	1,322	997	-4.4	1,299	30.3	-0.6	-3.21
쇠고기	653	578	10.6	764	32.3	5.4	15.59
돼지고기	510	313	-19.9	403	28.7	-7.5	-14.93
닭고기	128	71	-21.5	96	35.2	-8.9	-4.38
축산부산물	45	8	-40.6	4	-45.8	-54.7	-5.77
육류가공품	25	25	6.1	28	14.1	4.2	0.45
로알제리	302	395	22.8	481	21.7	16.9	25.15
낙농품	213	276	35.1	385	39.6	21.8	24.09
치즈	140	188	34.0	301	59.9	29.0	22.55
수산물	155	220	24.5	236	7.5	15.2	11.44
바닷가재	1	21	1104.7	41	93.4	272.3	5.63
어육및어란	56	68	15.5	80	17.6	12.2	3.27

주: MTI 전 단위 기준, 가운데 주요 수입품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참고자료】 FTA 이후 경쟁이 고조되는 한국의 와인시장

- 소비자의 기호 변화와 FTA로 인한 15.0%의 관세인하 효과는 와인 시장 확장에 기여했고,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 당시 5천 8백만 달러 수준이던 와인 수입시장 규모가 2014년 현재 1.8억 달러로 3배 이상 성장

<와인의 수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전년 대비 %)

2004 (4월 한·칠레 FTA 발효)		2011 (7월 한·EU FTA 발효)		2012 (3월 한·미 FTA 발효)		2014 (12월 한·호주 FTA 발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58	26.6	132	17.0	147	11.5	182	6.0

주: MTI 015740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 한·칠레 FTA 영향으로 칠레産 와인 점유율이 미국産을, 한·EU FTA 이후에는 스페인産 점유율이 호주産을 초과. 또한 한·미 FTA 이후에는 미국産이 점유율을 확대하는 등 와인 수입시장은 FTA 체결국 중심으로 재편되어 옴
- 2014.12월 한·호주 FTA까지 발효됨에 따라 향후 FTA 체결국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수입 품목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소비자 선택의 폭이 확대되고, 가격 인하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

<와인 수입시장의 국별 점유율(%)>

(단위: %)

순위	2004	2010	2011	2012	2013	2014
1	프랑스 (45.4)	프랑스 (31.9)	프랑스 (32.7)	프랑스 (31.6)	프랑스 (30.9)	프랑스 (30.5)
2	미국 (14.0)	칠레 (21.7)	칠레 (22.1)	칠레 (20.7)	칠레 (21.2)	칠레 (20.8)
3	칠레 (13.8)	이탈리아 (17.0)	이탈리아 (16.7)	이탈리아 (16.7)	이탈리아 (16.6)	이탈리아 (16.7)
4	이탈리아 (8.1)	미국 (9.9)	미국 (9.3)	미국 (11.7)	미국 (11.5)	미국 (11.6)
5	호주 (7.0)	호주 (6.2)	스페인 (6.6)	스페인 (6.8)	스페인 (8.0)	스페인 (7.6)
6	독일 (4.3)	스페인 (6.1)	호주 (5.9)	호주 (5.6)	호주 (4.3)	호주 (4.3)
7	스페인 (4.0)	독일 (2.6)	독일 (1.9)	독일 (2.0)	아르헨티나 (1.9)	남아공 (2.4)

주: MTI 015740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t)

IV. 결론 및 시사점

- 2014년 한미 FTA로 인한 관세 효과와 더불어 미국 경기의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우리의 대미 수출입이 큰 폭으로 증가
 - 2014년 對美 수출은 13.3%의 증가율을 기록해 對세계 수출(2.3%)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2012-13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對美 수입도 플러스로 반전
- 한미 FTA 발효 3년차에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5.5%, 비수혜품목의 수출은 12.5% 증가해 일본, 중국 등 경쟁국보다 양호한 성과를 보임
 - 對美 수출에서 FTA 수혜품목의 수출이 전년 대비 5.5% 증가해, 일본(-1.5%), 중국(5.3%) 등 주요 경쟁 대상국보다 높은 수출 증가율 기록
 - 산업별로 살펴보면, FTA 수혜품목의 수출은 금속 및 광물(26.1%), 화학제품(11.2%)의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
 - 수출 규모는 작지만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목재 및 종이(22.1%), 농수산물(7.5%)의 對美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세 시현
-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되어 2014년에는 10년 만에 최고치(2.97%)를 기록하며 한일 간 점유율 격차(2.74%p)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감소
 - 우리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FTA 발효 이후 2.59%(2012)→2.75%(2013)→2.97%(2014)로 확대
 - 일본 엔화 약세에 따른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일간 시장 점유율 격차는 3.85%p(2012)→3.37%p(2013)→2.74%p(2014)로 좁혀짐

□ 對美 수입은 FTA 발효 이후 의약품, 승용차, 나프타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으며, 농축수산품의 수입은 주로 국내 생산이 부족한 품목을 중심으로 증가

- 2012-14년간 수입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한 품목은 나프타로 수입 증가 기여율이 141.6%이며, 의약품과 승용차의 수입증가 기여율은 각각 59.7%, 79.0%로 나타남
- 對美 승용차 수입은 국내 소비자들의 수입 승용차 선호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4%→0%) 수입은 더욱 늘어날 전망
- 농축수산품의 수입은 당초 우려와 달리 FTA 발효 이후에도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던 품목들의 수입이 크게 확대되며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
- 바닷가재 수입은 3년간 연평균 272.3% 증가하였으며, 체리(39.4%), 아몬드(35.0%) 등은 두 자릿수 이상의 수입 증가율 기록

□ TPP 발효 이전에 한미 FTA를 활용한 시장 선점 극대화 노력이 필요

- FTA 효과와 더불어 미국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양국 간 교역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수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됨
- 미국을 비롯한 환태평양 연안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의 상반기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한미 FTA 선점효과 극대화가 요구됨

<참고자료>

제현정 외, “한미 FTA, 이제 시작이다”, 『Trade Focus』, 한국무역협회 국제
무역연구원 2014.3. Vol.13, No.12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美무역위원회(<http://usitc.gov/>)

산업통상자원부(<http://motie.go.kr/>)

수출입은행(<http://www.koreaexim.go.kr/>)

한국수입자동차협회(<http://www.kaida.co.kr>)